다시보는 불모지 ❶ 3.1절 · 광복절 특집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석굴암 경성 이운 계획 A to Z

석굴암이 재발견된 것은 1907년입니다. 경주 지역 우편배달부가 일본인에게 이곳에 석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석굴암이 다시 세상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3년 뒤인 1910년 8월 경주군 주임서기였던 기무라 시즈오에게 한통의 공문이 배달됩니다. 그 공문을 본 기무라 시즈오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석굴암의 불상과 불국사의 불상을 모두 해체해서 경성으로 이운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운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서 보내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제는 석굴암 불상과 불국사 불상들을 모두 해체해서 감포로 이운한 다음에 배편을 통해서 인천으로 이송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민에 빠졌던 기무라 시즈오는 결국 조선총독부의 명령을 무시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무라시즈오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대한제국에 최초로 초빙되어서 외국인 관리로 부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는 경주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경주지역에 있는 고분들이나 유적들을 보존하고 답사하는 신라회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평소 그의 지론은 현지의 유물은 현지에 있을 때 그 역사성이 증빙되고 공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실제로 기무라 시즈오가 1924년 발매했던 본인의 회고록 〈조선에서 늙어가며〉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평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기무라 시즈오에게 조선총독부의 명령은 사실상 폭력이나 진배없었습니다.

그 뒤로 관제나 직제가 새로 개편되면서 일본인 관리들이 새로 오고 경성으로 석굴암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실무선에서 흐지부지 되어버립니다. 물론 일본 본국과 조선총독부의 관점 차이나 이전 비용을 둘러싼 경제적 문제라든가 지역의 반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긴 했지만 기무라 시즈오가 조선총독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일제는 무엇을 하려고 석굴암을 해체해 경성으로 보내려고 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재미있는 연구결과가 하나 발표됐습니다. 경북대 인문학술원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라키 준이라는 일본인이 있는데 지난해 연말에 경주 남산 주제 학술대회에서 석굴암을 대체해서 이운된 비운의 불상들이 있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가 열린 경복궁 중앙홀에 설치된 유사 석굴암.



아라키 연구원에 따르면 석굴암을 경성으로 이전하려고 했었던 장본인인 데라우치 총독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나 정체성론(停滯性論)같은 식민사관의 신봉자이자 대표주자라고 봤습니다.

일선동조론은 한 마디로 일본 야마토 민족과 한국 한민족이 한 뿌리라고 보는 겁니다. 일본이 형이고 조선이 동생으로 일본을 좀 더 우위에 놓는 사상으로 황국식민화 정책이나 민족 말살 정책 등에 이론적 바탕이 됐던 사상입니다.

정체성론은 사회가 발전하는 단계가 있는데 원시 공산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사회주의 사회로의 발전단계가 있는데 조선은 고대사회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학자들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조선사회가 일본의 10세기 헤이안 시대 말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이렇다 보니 석굴암 같이 아주 유례없이 뛰어난 문화유산을 발견하게 되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선전하게 됩니다.

"일본이랑 엄청나게 교류를 많이 했던 신라시대에는 이렇게 뛰어난 문화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너희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조선시대 때와서 고대사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형제 국가인 우리가 너희들이 근대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처럼 식민사관의 신봉자였던 데라우치 총독은 한일합병을 기념해서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해체해서 부수고 석굴암을 그곳으로 이운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데라우치 총독의 석굴암 이전 계획은 무산되지만, 그의 야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석굴암을 대신해 그곳에 세울 대체품들을 찾아다니죠.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라는 박람회가 경복궁에서 열리는데 경복궁 중앙홀에 석굴암과 똑같은 구조의 석실을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의 불상들은 대체품을 직접 만든 게 아니라 경주 지역에 있는 불상들을 그냥 가져옵니다.

석굴암 본존불을 대신해서는 경주 남산 삼릉곡에 있는 약사여래좌상을 그대로 가져왔고 좌우협시불은 감산사 석굴 입상 2구로 대체하게 됩니다. 당시 조선물산공진회 메인홀의 모습을 보면 석굴암과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메인홀 양측 벽에는 석굴암 부조상 14체의 등신대 석고 모형이 설치됐고 천장에는 천인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경복궁에 석굴암을 세우려고 했던 데라우치의 야망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라키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데라우치는 조선왕조 상징인 경복궁을 해체하고 그곳에 석굴암을 고스란히 옮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선언할 것을 계획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차선책으로 공진회 미술관을 석굴암처럼 꾸몄다. 데라우치의 석굴암 경성 이전 계획은 그의 제국주의적 야망서 착상된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경주 석굴암은 서울로 이운되지 않고 지금도 토함산 자락에서 중생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굴암을 대신해 본래 자리를 떠나 서울로 와야 했던 비운의 불상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입니다.

승려 오타니 약탈 성보 韓도 있다

광복절입니다.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아온 기쁜 날이죠. 일본이 패망하게 되니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들은 자기 나라로 귀국해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미쳐 다 가져가지 못한 것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문화재입니다.

여러분 '실크로드의 악마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는 피터 홉커크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데요. 제국주의 열강들이 경쟁적으로 중앙아시아의 유적들을 탐험이라는 명목 하에 도굴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스벤 헤딘, 프랑스의 폰 펠리오, 독일의 알프레드 폰 르콕 등이 대표적인데 일본을 대표하는 '실크로드의 악마'는 단연 이 사람, 오타니 고즈이입니다.

오타니는 원래 스님이었습니다. 교토에 본부를 둔 정토진종 본원사파의 본산 서본원사의 22대 세습 주지였죠. 그는 1903년 사망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본원사 주지를 세습하고 백작 작위도 계승했죠.

근데 오타니는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스님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하며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이 됐고 이후에는 중국, 인도, 러시아를 여행하며 견문을 쌓았죠.

이런 지식을 가진 오타니는 불교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바라봅니다. 1915년 출간된 〈서역고고도보〉 서문에는 이렇게 써 있죠.

"탐험대를 조직한 목표는 불교의 동진 경로를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옛 중국 구법승의 이동로를 찾고, 중앙아시아에 남아있는 불상과 불경, 불구 등을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오타니는 1902년부터 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중앙아시아 전역의 석굴 벽화 등을 약탈하고 도굴합니다.

지금도 가기 어려운 중앙아시아를 전문 탐험대를 구성해 세 차례 다녀오려면 많은 경비가 소요돼죠. 일설에 따르면 오타니 탐험대가 10년간 쓴 경비가 교토시의 1년 예산에 필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비는 오타니 본인이 주지로 있는 서본원사가 댔습니다. 사실상 문화재 약탈의 한축을 일본 유명 종단이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타니의 탐험대는 세 차례의 원정을 통해 어마어마한 숫자의 불교 석굴



승려 오타니가 베제클릭 석굴서 떼어온 서원화 벽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벽화들을 절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키질의 천불동 쿰트라, 베제클릭 석굴 등이 오타니 탐험대가 약탈한 곳들입니다.

오타니라는 사람은 수행자로서 인간적으로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았던 인물로, 공심이 없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세 차례의 원정을 통해 얻은 문화재들을 전부 자신의 별장인 효고현 니라쿠소에 보관하죠. 하지만 이 유물들은 전부 흩어져 세계 각국 기관에 있죠.

어렵게 모은 유물들이 왜 세계 각국에 있는 걸까요. 바로 교단 비리 때문입니다. 1914년 2월 오타니가 주지로 있는 서본원사 승려 5명이 교단 부속 재단을 유용해 구속됐고 오타니 본인은 책임을 지고 주지직에서 물러나죠.

이후 오타니는 중국 여순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물 중 일부가 중국으로 건너갔죠. 당시 건너간 유물 1714건은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한국에도 오타니의 약탈 문화재는 존재하는 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 수는 360여 건 1500여 점에 달하죠.

특히 중앙아시아 불교 석굴에서 떼어온 벽화들이 있는데 베제크릭 석굴 서원화 벽화가 유명합니다. 이밖에도 쿰트라, 키질, 미란 석굴 등에서 떼온 벽화들도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는데 그 수가 60건 62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 오타니의 약탈 문화재가 있을까요. 오타니는 가져온 문화재를 자신의 별장인 니라쿠소에 보관하다가 중국으로 거처를 옮기며 이를 가져갔는데 전부 가져가지는 못했죠.

일부가 별장에 남아 있었는데 그 별장도 1916년에 상공대신을 지낸 구하라 후사노스케에게 넘어갑니다. 이 별장이 넘어가며 중앙아시아 유물도 함께 구하라에게 가게 되죠.

이 구하라라는 사람은 광산재벌이기도 한데요. 그는 이를 조선총독인 데라우치 마사다케에게 기증합니다. 데라우치와 구하라는 동향이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고향 친구라도 공짜로 유물을 주었을리 만무하죠. 일각에서는 조선의 광산채굴권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반도에 오게 된 중앙아시아의 벽화는 1916년 5월부터 서울 경복궁 수정전에 전시됩니다. 일본 패망 이후에는 이 벽화들과 유물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 남은 거죠.

참고로 오타니의 별장인 니라쿠소는 1932년 화재로 소실되는 데 한국으로 오지 않으면 저 소중한 벽화들도 사라졌을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겠죠.

오타니의 약탈문화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일제가 수탈해 한국에 남아 있는 불교문화재도 있죠.

바로 보물 제393호 전등사 철종입니다. 종의 새겨진 기록에 따르면 조성시기가 북송시대고, 하남성 회경부 수무현 숭명사의 종임이 확인됩니다.

이 종이 어떻게 한국에 온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제가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에서 금속류를 강제수탈하고 이를 한국에 들여와 부평 군기창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신앙심 높은 한 불교신자가 이를 다시 전등사로 이운해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야만과 이성의 경계에 있었던 근대에서 탐험을 명목으로 자행됐던 문화재의 약탈과 도굴들. 심지어 일본불교 종단의 지원으로 불교 석굴의 벽화가 절취됐던 탐욕의 역사는 전 인류가 되새겨야 하는 아픔입니다.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